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마을



나를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서 함께하는 넉넉함



이 우 재
한국마사회(KRA) 회장

긴 장마와 무더위로 유난히 힘들었던 올 여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던 불볕더위가 어느새 사라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 위로 잠자리가 날아다니며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름이 무더웠던 만큼 더 큰 가을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수확을 앞두고 겸허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참 부모의 사랑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우리 어린이들……. 그러나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투병생활을 함께하며 지쳐가고 있는 가족들까지.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하였습니다. 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어 기쁨은 배가 시키고, 환아들의 아픔은 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힘들었던 여름을 이겨낸 의지로 어린 친구들과 같이 하며, 희망으로 병마의 끝에서 더불어 기뻐하고자 합니다. 분명 함께하는 우리에게 모든 고통을 이겨낼 충분한 사랑이 있고, 또한 충분한 기쁨도 넘쳐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풍족한 한가위처럼 우리의 사랑과 관심도 넉넉하게 전달되어 모두가 감사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 재

태어나 주어서 고맙다! 우리 예쁜 딸...

문득 지난날을 떠올리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 4월, 월드컵 준비로 나라 안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우리 가족은 소아암이라는 생소한 벽에 부딪혀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 듯 점점 밑으로 가라앉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이마에 작은 혹이 생겨 종합병원을 찾았고 조직검사결과 악성림프종이며 3년 동안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내미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며 우리 아이의 생명을 하늘에 맡겼습니다. 평생 흘릴 눈물을 하루저녁에 쏟아 버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해야 아이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씩씩하게 이겨내야 한다고...

28개월짜리 아이가 항암제로 인해 한달사이에 5킬로가 불었다 빠졌다 했고, 여러 번 반복되는 수혈로 다리에 힘이 빠져 6살이 될 때까지 포대기로 업고 다니거나 휴대용 유모차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먹는 약으로, 다리·허리·가슴에 꽂은 혈관으로, 항암제는 여러 방법으로 아이의 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사 맞기 싫어 도망 다니는 아이를 달래 데리고 왔을 때 울면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왜 내 마음은 묻지도 않고 의사선생님 말만 듣고 의사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 커다란 바윗돌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치료가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외래를 간 어느 화요일 오후 재발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고용량 항암투여가 다시 시작되었고 힘든 고비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부딪혔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슬픔을 삼키고 또 다시 씩씩해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해준다고 했던가요. 어느새 8살이 되어버린 초등학교 1학년의 예쁜 딸. 남아 있는 항암치료 스케줄로 마스크와 모자는 늘

따라 다니는 친구가 되었고, 두 달에 한번 집에서 머리카락을 밀어주는 것도 늘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조금 자란 머리카락이 빠질 때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묻어 날까봐 줄음이 몰려와도 눕지 않으려 하는 딸아이를 위해 스카프며 큰 손수건을 꺼내놓고 이리저리 머리에 묶어도 보고 딸아도 봅니다. 딸아이는 영 내키지 않으면 엄마의 머리를 뺄뻔로 만들어 주며 속상함을 달래는 듯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미술치료를 시작한 후로는 머리 묶는 미용실 놀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런 말만 했었는데 미술치료 후 요령이 생겨 면역수치와 몸상태가 양호할 때면 자전거도 몇 바퀴 타게 해주고 배드민턴도 같이 칩니다.

늘 집에 갇혀 엄마하고만 지내던 아이가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희망을, 미래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해맑은 웃음 속에 즐거워하는 딸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합니다. 새벽기도를 할 때면 아이를 지켜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딸아이가 지금 이렇게 옆에 있어서 또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태어나 주어서 정말 고맙다. 예쁜 딸 금비야!!



사진은 집단미술치료 활동을 통해 완성된 금비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어머니의 ‘발’이 금비 가족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뽀글은 언제나 밝고 씩씩한 모습의 금비 서머넬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악성림프종 치료 중에 있는 금비와 금비 가족이 웃음을 잃지 않길 기원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화상강의시스템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김은주

교육인적자원부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 혹은 장기통원치료 중인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정과 병원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개별학습 지도가 가능한 **화상강의**시스템을 2006년 8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상강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일대일 대면이 가능한 수업형태’로 학년별, 과목별로 사이버학급을 구성하여 담임 혹은 교과전담 교사 1인이 5~8명의 학생을 담당하게 됩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은 이 화상강의를 통해 자신의 학년 혹은 학력 등 **개별적인 수준에 적합한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건강장애학생들 대부분이 장기 치료로 인해 학업 결손이 심각하며, 2차 감염 우려에 따라 학교에서의 공동생활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처음 화상강의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기회의 제공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국 1,024명의 건강장애학생 중 화상강의를 희망한 247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65명), 인천광역시 교수학습지원센터(18명), 경남교육청 내 더불어하나회(164명)에서 화상강의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화상강의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각 기관이 담당하는 대상학생의 거주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후반기 신규 신청자의 경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화상강의를 이용하게 됩니다.

<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 담당기관 >

시범운영 지역 및 담당기관	담당 건강장애학생 거주 지역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인천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	인천
경남교육청 (더불어하나회)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보다 많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적인 학습 지원은 물론 정서적인 지원을 받아 학교에 복귀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상강의시스템은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건강장애로 선정된 소아암, 백혈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 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장애로 선정되면 학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학교 출석, 병원학교 이용, 화상강의시스템 활용,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업 일수를 확보하는 내용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고, 이러한 계획에 근거하여 화상강의시스템 참여를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건강장애 선정 기준(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관련 별표 제8호)

: 심장장애 · 신장장애 ·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 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

※ 소속학교를 통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화상강의 이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해내고 싶습니다 !!

감기일거야...

매일 친구들과 야구도 하고 인라인을 타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던 저는 1999년 가을쯤부터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아주 좋아하던 저는 ‘그냥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글을 좋아하던 저는 손과 발이 글을 많이 먹어서 노랗게 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에 들어 갈 무렵 감기 증상이 있어 한동안 감기약을 먹었고 저녁만 되면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던 날 저녁, 저는 구토와 함께 아주 심하게 아팠지만, 병원에 가보자는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학교로 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 수업은 하나도 못 듣고 결국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는 속으로 온갖 상상을 다했습니다. ‘그냥 단순 감기일거야, 제발 안 아프게 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선생님께서 결과를 보시고는 저에게 많이 아파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받은 진단명은 악성 재생불량성빈혈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말없이 우시던 어머니.. 저는 그때 ‘내가 죽을병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북대학교 병원에 갔죠. 저는 응급실로 바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피를 4팩이나 맞고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검사들과 피를 다 맞으면 난 집에 갈 수 있겠지?’ 라고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왠지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지면서 ‘집에는 언제 가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학교에 친구들은 날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고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입원실로 옮겨지고 머리카락이 없

는 아이들과 아주머니들의 시선들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날 저리 쳐다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나는 저 아이들 같이 민둥머리가 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입원치료가 시작되고 골수검사 후 받은 진단명은 골수와 림프구성 복합 백혈병이었고, 몇 가지 추가 검사 후 최종 내려진 진단명은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열심히 치료만 잘 받고 밥 잘 먹고 하면 다 나을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전 다짐했습니다. 치료 잘 받고!! 밥도 잘 먹고!! 해서 꼭 다 나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구쟁이 소년에서 소아암 환자로...

병원에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저한테 장난치지 말라며 빨리 학교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고요. 워낙에 운동도 좋아하고 건강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이런 병이 걸릴지를 몰랐으니까요. 이후 병원에서의 생활이 내 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의 기억 중 가장 힘들었던 때는 병원 의약분업 폐업할 때였습니다. 그때 척수검사하는 날이었는데 20번 정도를 찔려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모범환자였던 나도 속에서 꼭꼭 참았던 눈물이 터졌고, 나보다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이 아파야하는지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 날 아프고 나서 제일 많이 울었던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때는 자주 오던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길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온갖 원망이 다 들었습니다. 나에게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전부이니깐요. 그 녀석들은 중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을 테지만 저에게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김 동 현

1987년 10월 12일생
2000년 3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2003년 8월 치료종결
구미1대학 의료서비스매니저과 1학년 재학 중

평범한 청년으로...

치료가 끝나고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웃을 수도 있겠지만, 참고 또 참고 못 먹었던 과일을 실컷 먹는 거였어요. 제가 과일 킬러였거든요. ^^ 그리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치료생활이 끝난 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일이 친구들이랑 밖에서 노는 거였거든요. 온전히 학교 생활을 했던 것은 초등학교가 전부였고 중학교는 고작 3일 다니고 졸업한 터라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 나이가 또 안 맞고 해서 결국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검정고시학과 재수학원을 다니면서도 제 또래를 찾기 힘들어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과정을 마치는 바람에 재수학원에 가서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많이 힘들었지요. 사실 저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 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놀고 싶었죠. 내가 아프지 않고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했더라면 교대에 원서는 내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항상 마음 속에 있답니다.

새로운 시작.. 도전!

2006년. 저는 지금 대학생이랍니다. ^^ 구미1대학 의료서비스 매니저과가 제가 선택한 곳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힘들었지만, 차차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아픈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거 같다는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의료 서비스 매니저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간호하시는 부모님들께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목표!! 저는 그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힘든 수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훈사랑의 집에서 친구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같이 하자고 작업 중이지요. ^^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제가 치료받을 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미래에 병을 이겨내고 내가 할 일을 상상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해주는 부모님, 할머니, 저 때문에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형,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꼭 병을 이겨내야겠다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밝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사랑, 즐거움과 희망과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과 같은 부정의 씨앗도 있습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든 꽃을 피울지는 여려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저는 긍정과 희망에 물을 주었죠. 모든 생각을 긍정적이고 나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 훗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힘들겠지만 치료 잘 받고 꼭 나오세요! 파이팅!



헌사랑의 집에서는...

서울 우체국 헌사랑의집

제주신라호텔과 함께한 아주 특별한 생일 잔치~

매월 제주신라호텔 마케팅팀에서 지원해 주시는 생일 잔치.

지난 7월 25일에는 좀 더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바로,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제주신라호텔 마케팅팀 직원분들과 베이커리의 과장님이 병원에 케이크와 생크림, 여러 가지 토핑들을 직접 준비해 오셔서 소아암 아이들과 함께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신라호텔 베이커리 과장님과 제주신라호텔 마케팅팀 직원들 덕분에 소아암 어린이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신라호텔 직원분들, 그리고 생일잔치마다 함께 해주시는 이화여자대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마술 이미지화 선생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조혜린 >



신촌 우체국 헌사랑의집

쉼터 가족 단합대회~

무서운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신촌 헌사랑의 집 가족들은 조출한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영화관람... 간략한 일정이었지만, 가족들과 아이들에게는 기분전환의 시간이 되었지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고 하죠? 같은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고, 치료 과정을 함께하면서 정말 한 가족이 되신 듯한 가족들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기분이 업~되어 걷기 연습을 열심히 하던 지원이를 보면서 조출하나마, 오늘 같은 자리를 자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들 치료가 끝나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해봅니다. ^^

집단미술치료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별미술치료를 받았던 환아들 중 5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미술을 매개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환아와 보호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박희선 · 임희은 >



대구 우체국 혼사랑의집

진짜 싸나이!!

7월의 둘째 토요일. 멋진 '비화' 형(오빠)들은 고등학생인 관계로 쉬지도 못하고 자율학습을 마친 후 아이들을 보기위해 혈레벌떡 혼사랑의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그래도 교복은 다 갈아입고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1학년 멤버들의 무대경험 부족으로 아이들과 일대일로 각자 준비한 마술을 릴레이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만나기 전까지 무척 떨던 형아들도 아이들과 익숙해지면서 차차 안정된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수가 들켰을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마술하면서 손을 바들바들 떠는 순수청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지요.

힘든 입원치료를 마무리하고 있는 은주의 축하파티로 이번 공연은 끝이 났습니다. 오빠들의 '고음불가' 축하송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죠~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이들과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비화', '진짜 싸나이'들입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하정연 >



부산 우체국 혼사랑의집

소아암 환자 부모교육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지난 7월 20일부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소아암 어린이 부모님을 위한 부모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첫 교육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뜨거운 열의로 강의실을 가득 채워주셨고, 강의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임영탁 교수님의 '소아암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이루어졌고 둘째 시간에는 박성식 교수님의 '고형종양의 이해'와 '진단 시 아동들의 심리와 대처전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월1회 이루어질 본 프로그램은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소아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부모님들의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뜻 깊은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 이정민 >



사랑이 모이는 곳

2006 KRA 공익성 기부금 지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2006 KRA 공익성 기부금 지원단체로 선정되어 총 4,000만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지원금은 소아암 환자의 치료비, Best smile 사진전, 소아암 환자 가족의 문화체험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KRA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앙일보 "Have A Dream 2006"

중앙일보에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소아암 어린이 돕기 "Have A Dream 2006"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중앙일보사에서 구독료 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신청하는 독자 1인당 2천원을, 그리고 2006 독일월드컵에서 대표팀 1승 시 1,0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독자 총 8600명의 참여와 독일월드컵 토고전 승리로 성금 1,000만원이 더해져 총 2,720만원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중앙일보와 독자가 함께 하여 모여진 소중한 후원금이 7월 25일 재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본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 쉽터인 '우체국 헌사랑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비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신 독자 여러분과 중앙일보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하!하!~웃찾사 관람

7월 21일,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SBS 웃찾사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TV가 아닌 SBS 방송국에서 직접 '웃찾사'를 관람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하하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월 공연 못지않게 더 많은 웃음과 희망을 선물해 주신 SBS 웃찾사 여러분과 SBS 심의팀 김광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보영영어스쿨의 나눔 바자회

이보영영어스쿨(목동소재)에서는 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 전액을 재단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

을 담아 전해주시는 후원금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보영영어스쿨" 학부모님, 학생, 직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훈초등학교 4명의 희망 나눔이

영훈초등학교의 황지연, 박영서, 박진웅, 박진형 학생은 직접 노래를 불러 만든 음악CD 판매와 거리 공연을 통해 모금한 후원금을 재단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영훈초등학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담임선생님께서 친구들이 이웃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이런 선생님의 뜻을 이어 4명의 영훈초등학교 학생이 모이게 되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연, 영서, 진웅, 진형 학생의 희망이 우리 소아암 친구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희망을 나누어준 지연, 영서, 진웅, 진형이,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주신 친구들의 선생님, 함께 열심히 모금활동을 해 주신 친구들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수비 팬카페

가수 비의 다음 팬카페 비나무에서는 팬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모은 후원금 100만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전달해주셨습니다. 소중한 모여진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수 비에 대한 사랑과 함께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주신 가수 비 다음 팬카페 비나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회 완치기원 연날리기 "나을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9월 2일, 한강 시민공원의 푸른 가을 하늘이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를 기원하는 노란 연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LG전자의 후원으로 진행된 금번 행사는 많은 소아암 가족과 함께



LG전자 임직원 여러분, 가족들이 연을 잘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LG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 항상 아이들에게 예쁜 페이스 페인팅을 해 주시는 미션드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주시는 박유선 자원봉사자님이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를 후원해 주신 LG전자와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형제캠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된 제6회 소아암어린이 형제캠프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한화국토개발(주)과 신한카드의 후원으로 진행된 금번 행사는 소아암어린이의 형제들이 모여 소아암에 대해 알아보는 '도전! 소아암 골든벨', 참가자들 서로의 비슷한 경험과 느낌을 나누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 신나는 물놀이와 캠프파이어까지 다채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참가한 친구들 모두가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아픈 형제와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사진으로나마 제6회 형제캠프 현장의 모습을 전합니다~ 행사 내내 세세히 살펴주시는 도리도리 자원봉사자 및 한화봉사단 여러분과 행사를 후원해주신 한화국토개발(주)와 신한카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대진의 이야기가 있는 살롱콘서트

지난 6월 9일 저녁, (주)63시티 초청으로 '김대진의 이야기가 있는 살롱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63빌딩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주황색 조끼를 입고 따스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봉사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기에, 우선 맛있고 푸짐한 뷔페로 저녁식사를 하고, 국제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음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중앙 VIP석에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자리에 앉아 귀여운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와 율동으로 시작한 김대진 교수의 피아노 연주 공연에 모두들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래식이라 혹 난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모두 대중적인 클래식들로 이루어져 있어 흥얼거리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답니다. 즐거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주)63시티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은행 노동조합 후원금 전달식

2006년 5월 30일, 하나은행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후원금 전달식 및 감사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1995년부터 2006년 5월까지 긴 시간 동안 조합원들이 삼삼오오 후원금을 모아 소아암 어린이들의

외래치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11년 동안 117명의 어린이에게 1억여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날 하나은행 노동조합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달해 주신 후원금은 '하나은행노동조합기금'으로 조성되어,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지원 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의 한결같은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초 / 대 / 합 / 니 / 다

하나! 미술치료 작품전시회

재단에서는 소아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술치료 과정 속에서 소아암 환자들이 치료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아암 환자들이 두려움과 고통을 스스로 표출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술치료 시작이후 만 3년을 갓 넘긴 2006년 겨울, 그 동안 환아들이 미술치료를 받으며 만들었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회를 갖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고, 각 작품들에 담겨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주세요!

- 일시 : 2006년 12월 13일 ~ 12월 19일
- 장소 : 토포하우스 제 3전시실(종로구 관훈동 소재/02-734-7555)
- 후원 : 우정사업본부
- 문의 : 신촌 우체국 헌사랑의 집 (02-704-8310)

두승!! 소아암 어린이 사진전 'Best Smile'

힘든 치료 중에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희망과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재단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미소를 잃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Best Smile"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소아암 가족 여러분과 후원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밝고 예쁜 미소천사들을 만나러 오세요~

- 일시 : 2006년 12월 27일 ~ 2007년 1월 2일
- 장소 : 토포하우스 제 3전시실(종로구 관훈동 소재/02-734-7555)
- 후원 : KRA
- 문의 : 재단 사무국 (02-766-7671~3)

특별기금지원 환아 소개 (2006. 6~2006. 8)

우체국 호사랑기금 : 각 300만원

이 예 리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강원)
 김 선 아 (재생불량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경기)
 김 준 혁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전북)
 정 겨 운 (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병원/전남)
 이 재 민 (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울산)
 이 지 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배 성 민 (수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북)
 오 창 보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여의도성모병원/서울)
 남 태 양 (결체조직연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전북)
 이 성 훈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박 연 주 (재생불량성빈혈/세브란스병원/서울)
 정 지 수 (근상피성암/서울대학교병원/경기)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금 : 각 500만원

이 은 서 (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이 민 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충북)

도탈소프트뱅크 기금 : 200만원

이 재 민 (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울산)

차가게살자기금 : 300만원

유 지 현 (중증재생불량성빈혈/한양대학교병원/부산)

KRA 기금 : 200만원

이 수 은 (급성림프구성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경북)

배재열기금 : 100만원

손 광 기 (골육종/원자력병원/전남)

이래기금 : 각 100만원

이 예 리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강원)
 이 현 우 (조직구증식증/서울대학교병원/전북)
 홍 유 성 (미성숙기형종/서울대학교병원/전북)
 강 영 준 (두개인두종/서울대학교병원/제주)

양친의료재단 : 100만원

김 선 아 (재생불량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경기)

김태훈기금 : 100만원

유 성 연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서울)

가수비엔클럽기금 : 100만원

오 창 보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여의도성모병원/서울)



알려드립니다!!

소아암 어린이 학교적응 프로그램 "학교 속으로 Go Go!!"

치료를 마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환아는 복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복학 후 적응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소아암 환아의 반 친구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소아암 환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환아가 복교 후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아암 어린이 학교 적응 프로그램 "학교속으로 Go Go"를 준비하였습니다. 복학을 앞둔, 혹은 재학 중인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복학을 앞두고, 재학 중인 소아암 어린이의 급우 및 담임교사
- 내용 : 영상자료를 활용한 사회복지사의 교육 및 희망의 열매달기
- 신청 및 문의 : 서울 · 신촌 우체국 혼사랑의집 02)363-7671
 대구 우체국 혼사랑의집 053)253-7671
 부산 우체국 혼사랑의집 051)244-7677
 전남 우체국 혼사랑의집 061)375-7671

아이들을 통해 배우는 소중한 체험

황지영 자원봉사자
도리도리 9기

마치 번데기가 나비로 탈피 하는 과정을 보여주듯 모든 수험생들은 3년 동안의 수험생활로 찌들어 버린 초체한 모습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한다. 대학은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방식과는 달리 모든 것을 자신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조언을 수도 없이 들어왔기에,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알아본다.

나도 그런 신입생 중에 한명이었으며, 내가 택한 동아리는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봉사 동아리 '도리도리'이다. 단지 아이들이 좋고,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동아리에 들었던 내게 '도리도리'는 매년 좋은 추억만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도리도리'라는 이름으로 정식 활동 했던 것이 아마 '대학체험 프로그램' 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투병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을 아이들이, 대학교라는 곳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갈피를 잡을 수 있게 해주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 경험을 통해 난 처음으로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전공이 남달리 보여 줄 게 없었던 것이었지만, 수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아이들이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했던 내 자신이 나름 장하다고 생각 했던 기회였다. 이런 점이 바로 자원봉사의 묘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신에게도 더 없는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게 되었다.

이러한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것이 '대학체험 프로그램'이라면 봉사활동의 재미와 즐거움을 주었던 계기는 바로 '형제캠프'이다. 이번 여름 방학 중 가장 보람되고 알차게 보낸 시간은 '형제캠프'라고 단언할 수 있다. 형제캠프를 가기 전, 나보다 먼저 갔다 오신 선배님들은 이구동성으로 '형제캠프야말로 동아리 활동 중의 진미'라고 하는 말을 수 없이 들어왔었다. 그런데 나도 내년에 형제캠프에 가게 될 후배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2박 3일 동안의 환아 형제들과의 생활을 통해 내가 이때까지 주 관심을 가지고 있던 환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픈 형제들로 인해 나머지 형제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아이들이라 물놀이, 게임 등을 너무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도 나오고 한편으론 안타까움도 앞섰다. '저렇게 재미있게 놀아야 할 시기에' 라는 생각에...

'형제캠프'는 그야말로 재밌게 놀고, 즐겁게 느끼고 온 곳이었다. 그때의 즐거움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라도 하듯, 내 팔과 얼굴은 정말 시커멓게 됐다.

앞으로 또 어떤 만남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날 보면, 나도 마음만큼은 어린 아이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형제캠프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해 주신 황지영 선생님을 비롯한 도리도리 봉사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둘리송 사침체조는 정말 최고였어요^^

오랫동안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하고 있는 나눔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싸이월드 미니홈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탁운** (<http://town.cyworld.com/kclf>)

재단의 1촌이 되어 소아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리고, 소아암 어린이의 수호투사가 되어주세요~

★ **해피빈의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해피로그~**

재단의 해피로그가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로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주)롯데닷컴과 함께 하는 희망클릭**

(주)롯데닷컴에서는 '희망클릭' 이벤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계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롯데닷컴 홈페이지에서 '롯데닷컴과 함께 하는 희망클릭'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 **The Fine~ 파인카드**

2006년에도 계속될 'The Fine 카드'의 나눔 문화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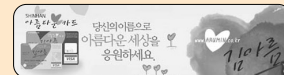
★ **롯데마트**

롯데마트 서울역 지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물건을 구입하신 후 꼭~ 마일리지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가세요~

→ 마일리지를 기부하셔도 고객님의 마일리지 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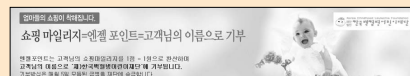
★ **신한카드사의 아름다운 카드**

아름다운 카드는 사용 시 결제 액의 0.5~0.8%의 아름 포인트가 적립되어 고객이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부 전용카드입니다.



★ **맘스 다이아리 엔젤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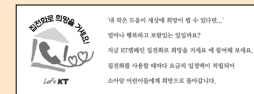
아포털사이트 맘스다이아리는 육아쇼핑몰인 [맘스쇼핑몰]에서 고객을 물건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포인트를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엔젤 포인트'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momsdiary.co.kr/> 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2006년에도 계속됩니다,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KT 캠페인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에 참여하시면 집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요금의 일정액이 적립되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신청방법 : 하나, 무료 전화 1516으로 전화하기 / 두울, 생명전화 중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선택하기



★ **파파프로덕션의 따뜻한 공연**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 공연장에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함과 리플렛을 비치하고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모금활동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증을 기증하면 공연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I♥Donation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극 [라이어] 수익금의 1%를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기증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파파프로덕션의 아름다운 공연 [미스터 마우스]와 [라이어]에 재단 가족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은 나무’ & ‘부드러운 버드나무’

소개글

이 두 책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불안이나 걱정,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소개하여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부드러운 버드나무’에 이어 질병의 치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작은 나무’가 발간되었다.

‘작은 나무’에서는 질병을 받아들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작은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질병을 가진 아동들에게 힘을 주는 책이며, ‘부드러운 버드나무’ 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와 그런 친구를 둔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사랑과 동정심, 보살핌과 함께 의심과 노여움, 슬픔과 같은 감정을 다루며 ‘죽음’과 ‘죽어 가는 것’에 대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치유과정 그림그리기’와 ‘행복한 마법의 숨쉬기’처럼 병에 걸린 아이가 통증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실어놓았으며. 특히, 책 말미에 ‘아이가 병에 걸렸을때’,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대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학 박사의 도움말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집 박미주 사회복지사)



‘부드러운 버드나무’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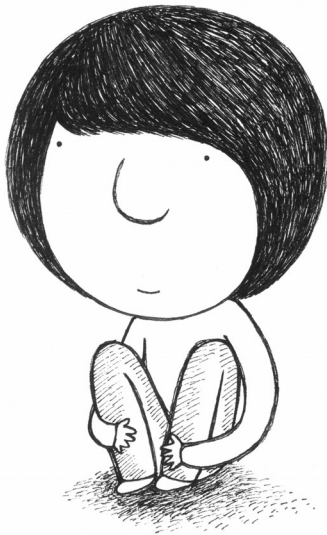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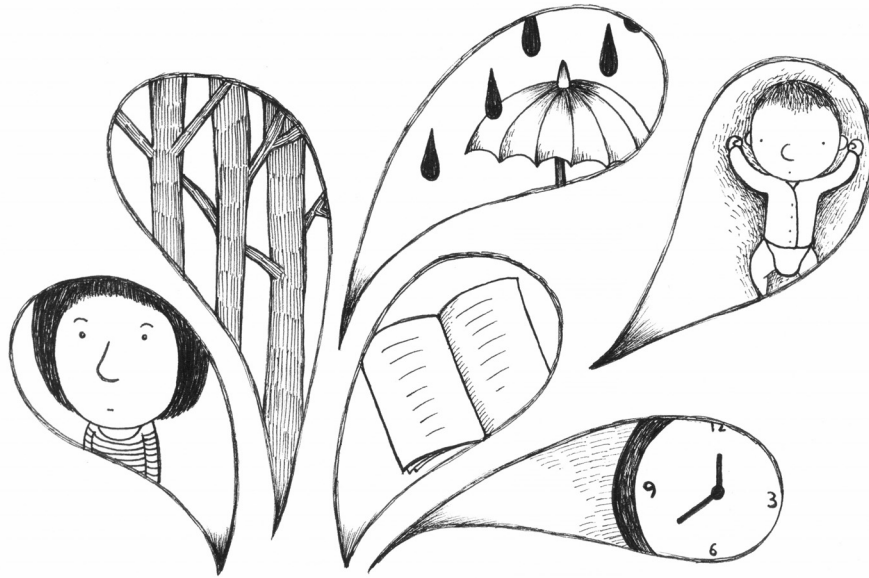
나무 마법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부드러운 버드나무 이야기를 통해 아이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죽음’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점점 바뀌는 여행’이라고 말함으로써, 죽음을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던 아이들이 새로운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한다. 땅을 기어 다니던 달복숭이 애벌레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나비애벌레의 변태과정을 비유로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아이에게 어떻게 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어떤 심리변화를 느끼게 되는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도움말을 달았다. 또한 힘겹게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뿐, 죽어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을 위한 ‘치유과정 그림그리기’와 ‘행복한 마법의 숨쉬기’ 등 아이가 통증과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활동을 실어 놓았다.

저자소개

조이스 밀스

조이스 밀스 박사는 부부관계 및 가족 치료 전문가이자 연극 치료 감독과 국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극 치료와 아동심리학 분야에 큰 공헌을 하여 국제 연극 치료상을 받았습니니다.

이 도서는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헌사랑의집 미니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을은 가을인가보다.
 오만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
 연락이 끊어진 그친구, 대형사 나무 많은 그길,
 비극경 나간날, 그책의 그극절, 늘 생각나는 조카우린우,
 그리고 멀고먼 그때의 내모습...

그만 생각하고 잠이나 자자.

♥ 한뜻후원자 소식 ♥

신규후원자 소개

(2006. 6. 1 ~ 2006. 8. 31 / 가나다 순입니다)

권미순 김병채 김화식 박경민 박광우 박철준 정상오 최태영
하경미 함승진

◆ 2006년 8월 31일까지 787분이 한뜻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 만세후원자 소식 ♥

신규후원자 소개

(2006. 6. 1 ~ 2006. 8. 31 / 가나다 순입니다)

(주)나스코인터내셔널 공혜정 권경은 김태용 김하순 박영복
박철준 배진경 변광섭 신창우

◆ 2006. 8월 31일까지 1,834분이 만세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새로 신청해 주신 후원자님, 이미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안내

- 국민은행 : 001-01-2353-890
-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 농협 : 029-01-176943
- 우체국 : 012989-01-003327
- 조흥은행 : 310-03-002396
-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만세회원자님께서도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알려드립니다!!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소식지와 우편물을 받아보실수 있도록 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단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매년 보내드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영수증을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하는 후원자님들이 많으십니다. 평소 우편물 수령이 잘 되지 않은 경우나 주소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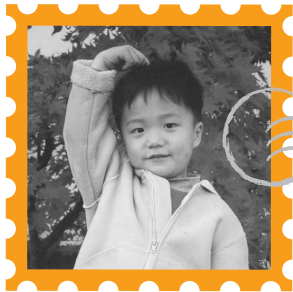
(☎ 02-766-7671~3 / E-mail : cancer@kclf.org)

♥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납입 영수증 발급 안내 ♥

후원금을 CMS방법으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되며, 자동이체나 지로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재단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천사백 이식비 지원 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는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2006. 6~2006. 8)



천 윤 수 - 1,000만원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2006년 8월 타인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이 가 영 - 4,795,620원

원신신경외배엽성종양/서울대학교병원/경북
2006년 8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이 준 수 - 1,000만원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2006년 9월 타인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이 신 희 - 1,000만원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충북
2006년 9월 제대혈이식 시행



남 희 주 - 4,050,910원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2006년 9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6년 8월 31일 현재) ♥

참여후원자 : 3,241명

구좌수 : 17,509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6. 6. 1 ~ 2006. 8. 31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입니다.)

경남은행 CMS	안말숙
국민은행 CMS	권창욱 김신천 박현담 손영식 이미경 이보라
기업은행 CMS	최혜선
농협 CMS	강민기 강민혁 김유신 염은영 장득조 전영주
대구은행 CMS	문영
부산은행 CMS	이선정
신한은행 CMS	최선애
외환은행 CMS	박철준
우리은행 CMS	임희광 장애자
제일은행 CMS	김재영
조흥은행 CMS	김지현 최길순 최호연
하나은행 CMS	박선재 이병호
한미은행 CMS	김은경

후원계좌안내

- 경남은행 : 514-07-0175564
- 광주은행 : 200-107-315315
- 국민은행 : 031-01-0414-356
- 기업은행 : 090-000260-04-022
- 농협 : 029-01-170940
- 대구은행 : 004-05-179828-001
- 부산은행 : 070-01-021379-8
- 신한은행 : 394-01-000694
- 외환은행 : 141-22-00799-6
- 우리은행 : 112-04-112571
- 우체국 : 012989-01-003313
- 제일은행 : 225-20-385050
- 조흥은행 : 367-01-192434
-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 한미은행 : 100-59711-251

· 예 금 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천사백 후원자님께서도 후원금을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1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CMS를 신청하시면 이전접대비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약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실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변경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도 재단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변경하실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02-766-7671~3 / E-mail : cancer@kclf.org)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6. 6. 1 ~ 2006. 8. 31)

고려여행사(50)	권진욱(2)	나진주(38)	명동손국수(87)	오종홍(1)
이이만(1)	전수환(1)	정인수(9)	주재련(56)	최명기(100)
한국관광공사(70)	홍세경(14)	화순우체국(43)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 특별 후원금


6월	강아미마미진	100,000	김옥희	120,000	영훈초등학교	1,037,860
	지마켓	1,806,940	(주)롯데닷컴	1,000,000	(주)심플소프트	166,000
	파파프로덕션	350,000				
7월	김주현	110,000	박상현 박태열 황경하	400,000	서울한강로타리클럽	1,120,000
	(주)중앙일보사	27,200,000	(주)롯데닷컴	1,000,000		
8월	배문성	2,000,000	신동민	130,000	장정애	300,000
	(주)롯데닷컴	1,017,400	(주)심플소프트	100,000	한화국토개발(주)	3,468,000

▶ 후원물품 (2006. 6. 1 ~ 2006. 8. 31)

김경주	세제	김동희	스팀청소기	김영훈	쌀	박은원	장난감
박찬중	생필품	사랑터	식료품	삼일공사	침터보수	성소연	과일
이단비	양파	이종민	음료수	이주영	장난감	자프린트닷컴(주)	도서
LG전자	진공청소기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6년 가을호는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